

경불회
경승단

동호회를 중단 소속으로? 간섭·관리보단 도움을
체계적 활동 지원 위해 필요!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포교가 우선... 상생의 길 찾아야”

“경승단이 경찰불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간섭하고 관리하려드는 게 말이 되나요?”

“경찰불자들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안일 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불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와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동하는 경승들의 모임인 대한불교경승단(이하 경승단)의 해묵은 감성싸움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경찰포교 분야에서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두 단체가 서로 서운한 감정을 삭이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경찰청 경승실로부터 불거졌다. 경승실 운영과 법당 불전금 관리를 경승단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하자, 경찰청 불교회는 “경승 스님들이 제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법당과 불교회 운영에 대해 간섭·관리하려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불회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경불회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경찰청 경승스님들의 법회 참석회수에서 경불회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총 41회의 법회 가운데 경승이 주관한 법회는 네 번 뿐이다. 한 경승단 소임자 스님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 24회, 신도국장 원철 스님 2회, 김진홍 경불회 사무국장 7회, 태고종 원로의원 덕화



경찰불교 활성화를 위해 경승단과 경찰불교회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경승 스님과 경불회 간부가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해양경찰서 참법법회.

스님과 남궁수 포교사가 각각 2회씩 법회를 주관했다. 이에 대해 경승단 관계자는 “진명 스님과 원철 스님은 두 분의 경승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경불회에서는 “경찰청 불교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진명 스님의 활동을 경승을 대신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승단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계종포교원에 경불회에 산하단체 등록을 권유하면서 두 단체간 관계는 악화됐다. 경불회는 조계종포교원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포교원의 등록권유를 경승단의 경불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포교원은 어차피 경불회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산하단체로 등록할 경우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권유했을 뿐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승단도 경불회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고개를 가웃거린다. 경불회가 조계종포교원 등록 거부이유로 제시한 신도단체가 아닌 경찰조직내 동호회라는 주장은 불교포교인 모임으로써 존립이유를 망각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불회와 경승단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포교를 이끌어 갈 두 단체의 협조체계가 흐트러져 효과적인 포교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 덕화 스님은 “두 단체간 신뢰 회복과 역할 분배,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승단은 경찰불자들의 실행을 지도·지원함으로써 경찰불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불교회는 바른 실행과 포교활동으로 재가불자로서의 소양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포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승단은 경승들의 활동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승의 해·위촉 추천권을 바르게 행사해 실질적으로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불회도 110개가 넘는 불교회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 조직을 정비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또 교사회학과는 “경승단과 경불회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경찰불교를 짊어지고 나란히 굴러가야 할 양 수레바퀴”라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

안녕하세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재근)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해 6개 기관의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하는 신행단체입니다. 2002년 5월 창립대 회원이 140명에서 300여명으로 늘어날만큼 끝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변화를 법회 위주의 활동에서 사회봉사 등 자

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한 결과 회원들의 반응이 좋고 우리 불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는 년 2회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불자회에서는 또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기 위해 매년 철야정진과 사찰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2003년 6월과 10월 경주 불국사와 단양 구인사를 찾아 성지순례를 겸한 철야정진을 실시했고, 지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연합회는 ‘봉사하는 불자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2003년 11월 대전 공무원불자들이 이동복지시설인 지혜원을 방문하는 모습.

관내 복지시설서 ‘전천후 봉사활동’ 전개

철야정진·사찰문화체험으로 내실 다져

비행을 실천하는 불자회로 거듭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에서 제정한 사회봉사의 날에 동참하는 취지로 대전 자양동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자혜원을 위문

한 이래 대전관내 복지시설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대전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대전시청), 사랑의집(유성구청), 발동종합사회복지관(대덕구청), 자혜원(중구청), 탈북주민 위문 및 봉사(중구청) 등 시청과 각 구청 불자회별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시청 불자회의 경우 회원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400kg에 달하는 쌀과 떡, 과일, 수육, 음료를 준비해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양준비, 배식, 설거지는 물론 대강당 청소,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10월에도 김천 직지사에서 용맹정진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불자회 주관으로 공주 갑사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수련회 및 사찰문화체험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매월 백제불교회관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법회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불자들의 화합의 마당인 동시에 회원들의 수행을 돕는 자리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는 노재근 회장(공무원교육원장)님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불자회’ ‘정법을 배우는 불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초발심의 자세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실을 기함으로써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불퇴전의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계획입니다.

■전형진 총무(대전시청 문화예술과)

철도 발전 지원법회 열린다

철불협, 19일 직지사서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에서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로 옷을 갈아입은 철도불자들이 철도발전을 지원하는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회장 김해수·이하 철불협)는 2월 19일 오후 2시 김천 직지사서 ‘한국철도공사 창립기념 및 철도발전 지원법회’를 봉행한다.

철도공사 법우회를 비롯해 철불협 소속 22개 법우회가 모두 참석하는 이날 법회는 김해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광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세호 한국공무원불자연합

회장(건설교통부 차관)의 축사와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의 법어, 지도법사 화암 스님(양평 사나사 주지)의 축원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박장식 운영위원장의 선창으로 모 든 철도불자들이 무사고기원문을 낭독하며 이날 법회의 의미를 되새긴다.

김해수 철불협 회장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환골탈피하는 대변력을 이뤘다”며 “우리 철도불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철도발전과 무사고 안전운행을 제불보살님께 간절하게 기원하는 법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병영 기자

“젊은 불심으로 거듭나자” 다짐

불교법조인회 정기총회서

불교법조인회(회장 전창렬)는 2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봉행하고 ‘젊은 피’ 수혈을 통한 젊은 불교법조인 모임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이를 위해 불교법조인회는 올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젊은층의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소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관련 수행·기도모임과의 연대·통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 불법의 진리를 전하는 법조인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불교법조인회장 전창렬 변호사는 “다르마법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법조계를 대표하는 불교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예

대한불교 삼론종

전 국토를 불교화·전 국민을 불자화·전 생활을 불교화

- 종정 석파 전석봉
- 부종정 대정 이혜공
- 승정원장 신수 이종규
- 총무원장 해광 사일복
- 총회의장 대안 정금호
- 사정원장 정봉 류해원
- 재정원장 청봉 이인교
- 포교원장 지운 윤태영
- 수선원장 오봉 김규채

*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3월 20일(음, 2월 11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충주호 중앙탑에서, 국운융창 경제회복 및 만등불사 대법회에 중도각위께서는 지극한 애중심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선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호 TEL 02)379-4631 FAX 02)379-4632

베스트 셀러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온 내면의 소리를 고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나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디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조가 된 도산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공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운명비결」 「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넷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자 전수자 모집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